

# '우리는 백운성수, 이 땅의 주인이다'

### 전북농협지역본부, 조합원한마음대동제 성료... 천여명 참가해 결속 다져

진안 백운농협(조합장 신용빈), 성수농협(조합장 손갑용)은 지난 27일 (백운, 성수농협) 합병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동제'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는 백운성수,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주제로 안호영 국회의원, 신갑수 진안군의회, 이한기 도의원 등 내, 외부 및 조합원 천여명이 참가해 결속을 다졌다.

이날 대동제는 1부(식전 난타, 풍물공연, 기념식), 2부(국악공연, 행복나눔행사) 등으로 진행, 조합원들과의 화합의 장이 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최고령 조합원(이성재, 성수, 96)에 대한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꽃다발 전달식을 했고 합병추진위원들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감사패 증정,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수박, 참깨) 공신출하회에 대한 조합장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특히, 백운농협에서는 선제적 합병을 통한 강소농협의 기틀을 제공해 준 농협중앙회 조합구조개선부(부장 장덕수) 직원들에게 조합장 감사패와 함께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합병농협에서의 감사패 전달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사례이다.

농협중앙회는 합병과정에서 500억 가량의 무이자 자금, 추가부실에 대한 추가정산 등을 통해 합병농협의

조기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백운농협 자산규모는 300~500억원 추산 1,050여명의 조합원 현황, 성수농협 자산규모는 약 300억원 조합원 현황은 약 850여명으로 집계, 이에 합 1,400여, 조합원 1,800여명의 강소농협으로 규모와 됐다. 한편, 신용빈 백운농협조합장은 "합병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품목인 사과, 수박, 양파, 참깨를 집중적 육성으로, 농가소득 5천만원을 기필코 달성하여 조합원들에게 힘이 되고 조합원들이 주인 되는 농협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 백운농협, 성수농협이 지난 27일 합병기념 '조합원 한마음 대동제'를 했다.

##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JB 인문학 강좌' 열어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6일 군산 동고등학교에서 제18회 '2018 JB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이 날 강좌는 군산동고등학교 2학년 200여명을 대상, 한 끼 밥상을 통해 청년들을 위로하는 '소녀 방앗간' 김민영 대표를 초청, '당신이 마음을 주면 바뀌는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탓에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19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고 늘 허기지고 힘들었던 20대 초반,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농촌 살이를 하는 언니를 따라 경북 청송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내어 준 시골 밥상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김대표의 인생도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후 김대표는 농가의 농산물을 재배에 사들이고 좋은 식재료로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힐링 밥상을 만들어 '주식회사 방앗간 컴퍼니'를 세웠고 '내 몸에 미안하지 않은 정성껏 차린 한 끼'를 목표로 창업 4년차 경험을 전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북은행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 방문

### 현장 찾아 센터 직원들 격려

### 금융 이용 고객들 의견 청취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센터'가 정부의 포용적 금융 정책 실천에 앞장서며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은행장 현장 간담회' 일정에 맞춰 전주를 찾은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간담회 일정에 앞서 지난 3월 문을 연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센터를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북은행

이 실시하고 있는 포용적 금융 현장을 직접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 중금리 대출 이용자와 소상공인 등 지역금융 이용 사례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정부 주요 금융 정책인 '포용적 금융'에 동참, 지역 은행으로 역할 강화와 고객에게 다가가는 실천적 따뜻한 금융을 지향하기 위해 운영 중인 '따뜻한 금융클리닉 전주센터'는 고객들의 상환의지를 담보로 누구나 제도권 금융 내에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다양한 채널 발굴을 통해 고객들의 신용관리 및 은행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고객의 상환의지만으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임에도 지방 은행 전북은행에서 자체 프로세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놀랍다"며, "금융은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이를 위해 단순히 현재의 신용등급 같은 정보가 아닌 고객의 미래 가치를 보고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상환 의지를 담보로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센터 사례를 참고해 정책 서민 금융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이 따뜻한 금융 클리닉 전주센터를 방문했다.

## 농협하나로마트, 김장 절임배추 예약 할인 판매

농협(회장 김병원)은 본격적인 김장시즌을 맞아 11월 7일까지 전국 농,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절임배추 사전예약 할인판매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한 농협김치 가공시설에서 절임배추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선별부터 유통단계까지 엄격하게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김장재료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농협은 사전예약 고객 대상, 최대 30% 특별 할인하며 NH카드(NH비씨 포함)로 결제할 경우 박스당 5천원 추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알뜰하게 감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예약한 절임배추는 본격적인 김장시기인 11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기간(18일 간) 중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수령 가능하다.

절임배추 사전예약을 희망하는 고객은 전국 농, 축협 하나로마트 매장을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이주열 "경기 감안해 금리결정... 한 번 인상은 긴축 아냐"

### "하방압력 요인 커 보이는게 사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실물경기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금리를 한 번 올리더라도 긴축은 아니라는 견해를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리인상 가능성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에 "실물경기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부동산

은 거래 절벽 단계에 들어갔고 가계부채 대출 규제는 강화된 시점에 거시지표가 나빠지는데 금융안정을 이유로 금리인상할 명분이 있느냐"며 "경제 성장세가 나빠지는 점을 감안해서 금리인상을 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라며 "여러가지 경계해야 할 점,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게 사실이다.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인상시 한계기업이나 고용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

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금리가 0.25%p씩 모두 1%p가 오르면 한계기업이 7813곳으로 늘어나고 구조조정 위기에 처하는 노동자가 74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어떻게 감안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면 한계기업, 경제에 영향을 주고 고용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상 금리정책을 할 때 부문을별로 따로 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늘 유념하고 있고, 당국과 정부와 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

## 김동연 "농·수협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 충분히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일몰 기간 연장 요구에 "대도시에 살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를 순별로 따로 보고 대책을 내놔야겠다"고 답했다.

그는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 수

급이 심각해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에는 "지원금은 보조금처럼 목차가 나오지 않아 현황 파악이 바로 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인 농민보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준조합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